

# 영천 곳곳에서 이어지는 장학금 기탁...지역 인재 육성에 한마음

강을호 기자 keh9@naver.com    입력 | 수정 2026.08.11 13:44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사진제공=영천시



별사랑 봉사회. 사진제공=영천시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사진제공=영천시



말밭농장 조동형 대표. 사진제공=영천시

(재)영천시장학회에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춘희)는 영천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와 농지 등 농어촌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영천지사 역시 지역 농업과 농촌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영천지사는 2015년부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누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별사랑봉사회(회장 장민정)도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2008년 결성된 별사랑봉사회는 나자렛집 봉사와 김장 나눔, 어버이날 행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해 현재까지 누적 3930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 농업인들의 장학금 기탁도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한동윤)는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영천시지부는 2010년부터 장학금 기탁을 이어와 이번 기탁을 포함해 총 705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청통면 신덕리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는 말밭농장(대표 조동형)도 500만 원을 보태며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했다. 말밭농장은 2014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한 누적 기탁액은 2000만 원이다.

김병삼 영천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 아이들이 학업에 힘쓰고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회도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말했다.